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2022년 9월04일(다해)

4040 Nelthorpe St. Victoria BC V8X 2A1

제13권 665호

2022년 <사목목표>-절제의 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주일 미사 : 빅토리아: 일요일 3PM
나나이모: 토요일 4PM
평일 미사 : 수요일 7:30PM(빅-성당)
목요일 10:30AM(빅-성당)
교해 성사 : 미사 30분전

주임신부 : 유영진 로베르토 ☎ 778-966-3689
카카오톡 ID-ryu0758
사목회장 : 변영호 리처드 ☎ 250-893-3355
성당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hsaem>
주소 : 6234 Spartan Rd, Nanaimo, BC V9T 2N9

사목목표 실천을 위한 우리의 다짐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닌, “우리 행동을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유”를 뜻합니다.

절제를 통해 깊은 자유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거룩한 마음으로 열심히
미사 봉헌하기
- 주일 미사 빠지지 않기.
- 평일 미사 참석해 보기.

▣ 나와 이웃과의 관계:

절제와 절약으로 나눔의 삶 실천하기
- 절제를 통해 이웃에게 나눔 실천하기.
- 타인에 대한 험담을 절제하고 칭찬과
사랑의 말 나누기.
- 쉬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하느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칭찬해보기.
- 음식물을 버리지 않기.
- 일주일에 한번 휴대폰 및 TV시청을
30분 줄이고 묵주기도 바치기.

2022년 9월 04일 [(녹) 연중 제23주일]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분별하여 사용하고 천상 사물을 알아보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청합시다.

<전례 순서>

▣ 입당송: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옵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 입당 성가 44 (평화를 주옵소서)

▣ 제1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9,13-18

▣ 화답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레몬서 말씀입니다.9-10.12-17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알렐루야.

▣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5-33

▣ 봉헌 성가 340(봉헌)

▣ 영성체송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 성체성가 165 (주의 잔치)

▣ 파견성가 19 (주를 따르리)

▣ 오늘의 묵상

수난과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당신을 뒤따르는 군중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자기 목숨마저 미워하고 모든 소유를 버린 채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가족을 등지고 스스로를 괴롭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머뭇거린 제자나(마태 8,21-22 참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여 떠나 버린 부자 청년처럼(마태 19,16-22 참조),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데 방해되는 무엇인가를 마음 한 쪽에 쌓아 둔 채 그것에 의지하며 위로를 찾는 이라면 그분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자기 소유"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온갖 집착, 아집과 교만, 이기심과 재물, 형식적인 신앙생활일 터입니다.

건축물을 짓거나 전투에 나서는, 세속적인 일조차도 매우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진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이가 치열한 고뇌와 희생 없이 어찌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타성에 젖어 허울뿐인 제자의 됨됨이 속에 거저 얻어지는 믿음은 없습니다. 나이 든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옥바라지를 위하여 꼭 곁에 두고 싶어 하였던 오네시모스를 기꺼이 돌려보냈듯이(제2독서 참조), 우리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갇혀 살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제1독서 참조).

주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용기 있게 버릴 때 찾아오는 '자유'에 맛 들여 갈 때, 비로소 제 십자가를 힘껏 끌어안고 참제자가 되어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루카 18,29-30).

(강수원 베드로 신부)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반주
9월 4일 연중 제23주일	빅토리아	방영실 카타리나	이석태 요셉	한호진, 김대현	한예진 수산나
	나나이모	김여순 젬마	김은정 체사리아		이유빈 스텔라
9월 11일 연중 제24주일 (한가위)	빅토리아	변준섭 사도요한	한동호 아브라함	한호진, 한우진	한예진 수산나
	나나이모	테레사 하트	김미나 사라	박지성	이유빈 스텔라

▶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신청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성인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 유아세례- 수시 접수

▶ 성인세례식-수시 접수

신청서 접수: 빅토리아-강보녀 모니카
나나이모-김미나 사라

연중 제23주일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당신 저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지에서의 저자는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 오늘 미사 후 사목회의 있습니다.

▶ 미사 시간 안내

9월10일 한가위-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
-나나이모-9월10일(토), 빅토리아-9월11일(주일)

▶ 예비자 교리-9월

2022년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세례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9월 부터 실시 합니다.

예비신자 초대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일 학교 시작

주일 미사 후 4시 10분부터 parish hall에서 있습니다.

▶ 함께 기도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본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통한 건강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잊지 마세요!!!

-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후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을
저희 공동체도 함께 지향을 가지고 봉헌합니다.
(주모경을 바친 후에 다음의 기도를 바쳐주세요.)
“평화의 모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100만단 목주기도를 봉헌합니다.

빅토리아 한인공동체와 빅토리아 교구의 발전과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 목주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 590,949단

이번 주 : 350단 현재 : 591,299단

▶ 레지오 회합

천사들의 모후 Pr-매주 월요일 8PM

파티마의 모후 Pr-매주 화요일 10:00AM

우리들의 정성 (2022년 8월 28일)

빅토리아 봉헌금	\$ 375
빅토리아 교무금(2세대)	\$ 140
나나이모 봉헌금	\$ 265
나나이모 교무금(세대)	\$
봉헌금 소계	\$ 780
감사헌금-최대곤	\$ 100
매일 미사 판매-박찬일	\$ 65
합 계	\$ 945

본당 e-transfer 계정 안내

koreancommunity@rcdvictoria.org

▶ 교무금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은혜를 간청하면서, 교회를 통해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천주교회법규 제2장 5절 157항-

▶ 기도문 안내

9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찬미받으소서」<개정판>)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빅토리아
교우 Business 안내



개인주택 레노베이션 전문
이석태 요셉
250-889-2500



자동차 / 주택 / 상업
/ 여행자 보험
문창주 애릭
ericm@harbordinsurance.com
150-805 Cloverdale, Victoria
250-889-5650
harbordinsurance.com



RESP / RRSP / TFSA 펀드
생명, 엔탈, 여행자 보험
변영호 리처드
www.primerica.com/richardbyeon
250-893-3355

J J Acupuncture & Massage Clinic

각종 통증 완벽판리
침, 경락마사지, 부항
콤보치료
JJ Kim 카타리나
250-884-8182



스시 아일랜드
Japanese restaurant
사시미. 롤. 우동. 라멘
박성배, 정혜숙 크리스티나
#105-1633 hillside ave victoria
778-433-8488



Korean Fried Chicken
심환규 가브리엘, 김희진 가브리엘라
2224 Quadra St, Victoria
250-590-6491

WINKS MARKET

한국 식품점
현대 택배
이동석 안토니오
250-885-9497
250-360-2838



Sweet Garden Cafe
딸기생크림케이크
롤케이크/쿠키
박효진 마리아
카드: Victoria 0903
778-679-9464

빅토리아 유현자 부동산

밴쿠버 아일랜드 모든 지역
(집, 비즈니스, 상가건물)
유현자 글라라
YouTube: cuvictoria24
250-858-6775



박찬일 스테파노
3601 Shelbourne St.
Victoria, BC
250-721-2420
250-514-1831 (Cell)
squeakyslaundromat@gmail.com
www.squeakyslaundromat.com



빅토리아 한인천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나나이모
교우 Business 안내

SERIOUS COFFEE 

이순재 요셉
이유빈 스텔라
Vancouver Island conference center (VICC)
#300-60 Commercial st. Nanaimo
250-591-1065



Dolphin 모텔
권 베로니카
1190 Pacific Rim Hwy, Tofino
250-725-3377 (토피노)

Umai Sushi

일식 레스토랑
이효열 오틸리아
Nanaimo North Town Centre
4575 Uplands Dr, Nanaimo
250-585-8900 (나나이모)

Nana Sushi

스시, 롤, 라멘
김시나 드보라, 김시령 아네스,
김대우 시몬
14 Victoria Crescent, Nanaimo
250-591-0755 (나나이모)

이 광고란은 여러분의 도네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사라, 604-219-5113